

제195호 · 발행일 : 2011. 6. 30(목)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태고적 신비로움 그대로 쏟구치는 의기양양의 힘

태고적 신비로움 그대로
쏟구치는 의기양양의 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오색 용소폭포는 자연 그대로
천혜의 절경과 힘을 자랑하며
시원스런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양양은
천년 전 물줄기를 고이 간직한
용소폭포의 그것처럼 굽이치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가선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전영진씨

오색케이블카 설치 유치 총력전

군민들 2만 서명운동 전개...환경부 연내 최종 확정 계획

평창동계올림픽 등 설악권 관광인프라 기대감

우리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연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유치 총력전이 본격화됐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상철 군수와 오세만 의장, 이태희 남대천보전회장 등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회단체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과 남대천보전회 등 지역주민들은 현산문화제가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2만 군민 서명을 목표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특히 오색케이블카의 성사를 위해 3만 양양군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범군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 군민 전체가 하나 된 목소리로 유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추진위는 정부가 연내 친환경케이블카 설치 시범지를 내륙 2곳, 해안 1곳 등 3곳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고, 10년간 장기간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가 반드시 선정되도록 전방위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리군은 지난 14일 정상철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양양출신 공무원과 출향인 등 각계인사를 만나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도 방문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범군민대책위는 또 우리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원 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양양군민들이 추진

해온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정상철 군수는 이와 관련, “3만 군민들의 운명과 함께 하는 오색케이블카는 공동화된 설악권 관광활성화의 유일한 친환경적 대안이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시 배후도시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 사안이기애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색케이블카는 자체적으로 그동안 친환경적 대안이라는 학술노력을 통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설악권 4개 시군의 공동지지를 이끌어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군도 오색케이블카가 친환경적 사업이라는 점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주체에 환경단체를 참여시키는 한편, 환경훼손의 우려가 발견되면 즉시 가동을 멈추게 하는 페널티 제도 도입 등 보다 엄격화된 보전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오색케이블카 추진상황

오색케이블카는 연간 30만명이 대청봉을 오르는 최단코스인 오색~대청봉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식생대가 급격히 훼손돼 이를 복원하기 위한 친환경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공동화되고 있는 설악권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며 곧 발표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배후도시로서 국가적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우리군은 그동안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세계적 명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국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찮아 그동안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단체는 우선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보존과 무관한 시설로 경관, 조망권,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주타워 등을 설치하면 환경훼손이 심화된다는 입장이다. 또 상부정류장 정상 일대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탐방객수 급증으로 훼손속도는 더욱 가속화 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군을 비롯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각 자치단체는 호주와 스위스 등 산악설치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며 지주설치는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하고 헬기로 수송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훼손은 줄어든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군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지난 2001년 9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데 이어 2002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 2003~2005년 범군민 서명운동 및 제도개선 건의, 2008년 주민 토론회 개최 등 눈물겨운 추진활동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 2008년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2009년 1월 드디어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발목을 잡았던 거리제한이 기존 2km에서 5km로 완화되는 성과를 얻어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이며 2010년 1월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공포, 국립공원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의 길을 열었다.

현재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지자체는 우리군을 포함해 6개 자치단체로 전국적으로는 16개 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군도 이처럼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크게 완화되자,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2만명의 서명서를 환경부에 전달하고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의장단협의회에 시범사업 선정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로프웨이 담당 670-2530

진정한 위민봉사행정 실현

우리군, 민원상담관제 등 양질의 봉사행정 추진

우리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위민 봉사행정’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마인드와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4.27 재선거로 새롭게 출발한 민선5기 군정핵심 목표를 ‘군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 봉사행정’으로 정하고 양질의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청 1층 민원실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성과소별로 윤번제로 배치해 민원상담, 처리부서 안내, 민원신청서류 작성 대행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친절교육과 더불어 친절봉사 자율실천 수칙을 정해 친절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유도하는 한편 친절도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해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124개리에 대한 명예리장을 재정비하고 매주 1회 이상 해당 마을을 출장해 숙원사업과, 고충사항 등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해결 및 관리하는 현장 확인행정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상철 군수는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하 늘같이 떠받드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군민을 위한 진정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친절도를 사기업, 은행권만큼 끌어 올리고 윈스톱 민원행정시스템 구축 및 복합민원사 전심사제 등 차별화된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해 군민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670-2221, 민원봉사와 민원봉사 670-2241

자주재원 확보 총력전

우리군 가용재원 증대 계획

우리군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며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17.1%에 그치는 취약한 재정상황이 장기화되는데다 과도한 채무상환과 공공시설물 운영비 부담으로 자주재원이 부족해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이 늘어나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행정운영경비, 행사·축제성경비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보조금을 대폭 절감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해 군비 가용재원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군의 지방채는 현재 국비부담, 원인자 부담을 포함해 총 471

억원으로 올해의 경우, 79억원을 상환하는 등 과도한 채무상환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만큼 재해복구와 관련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무발행을 지양하고 단계별 상환계획을 수립해 조기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기초통계자료 정비와 인센티브 항목 관리강화, 교부세 산정비중 확대분야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군에 불리하게 작용해온 낙후지역 수요 등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양양종합운동장 공사 본격 착수

실시설계 용역 발주 3개년 추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는 지역의 체육인프라 확충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억9,900만원을 들여 이달 중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건축·토목·조경 등 분야

별 사업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토질조사, 접근성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개발 촉과 주변지역 개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도심 및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충, 경관 등에 개발목표를 두고 운동장 이용객 추이, 활용범위 등을 종합 검토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양양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 9만1,462㎡의 부지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5,100㎡(지하1층·지상 3층), 관람석 1,500석 규모의 운동장과 농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계획부지 내 사유지 6만9,074㎡중 88.3%인 6만993㎡를 매입하고 분묘 408기를 이장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분묘 개장공고를 마친 상태로 올해 안에 잔여토지와 분묘 이장 및 실시설계 등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44번 국도변 배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도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해담마을 전국 경쟁력 ‘최고’

행안부 정보화마을 대상...송천떡마을 최우수

우리군이 육성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평가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잇달아 수상해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365곳의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2011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서면 서립리 해담마을이 대상을, 서면 송천리 송천떡마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두 마을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기념동판을 받게 되며 대상인 해담마을은 300만원의

시상금을, 최우수상인 송천떡마을은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고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 8천만원, 최우수상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특산물 및 체험상품 판매건수, 액수, 소득 증가율 등 지역경쟁력 강화지수와 홈페이지 방문자수, 게시판 활용 등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마을 활성화지수 2개 분야 12개 항목에서 실시된 가운데 해담마을과 떡마을은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득향상과 홈페이지 접속실적이 많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온라인 판매소득은 해담마을이 2억2,200만원, 송천떡마을이 1억6,700만원으로 해담마을은 온라인을 통한 체험이 인기를 끌었고 송천 떡마을은 온라인으로 떡을 사는 쇼핑이 주를 이뤘다.

명품마을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화마을 인증마크와 깃발 제작 지원, 프로그램 관리자인건비 지원, 중앙단위 홍보지원, 민간 유통업체를 통한 특산물 판매 채널 연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대상을 수상한 해담마을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관광 대표명소 ‘Rural-20 프로젝트’에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다.

▶문의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670-2462

구제역 양돈단지 수돗물 공급

우리군, 환경감시단도 본격 운영

우리군이 구제역 매몰지역의 식수원 오염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에 상수도사업을 준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나선다.

군은 올 1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2만여두를 살 처분한 손양면 삼존리 양돈단지 매몰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

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수도시설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최근 관정 및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식수 공급에 들어간다.

군은 이와 함께 삼존리 양돈단지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환경감시단은 환경관리반, 축산지원

반, 환경감시반 등 3개반 17명으로 운영되며 특히 9명의 손양면 이장과 군·도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반은 축산분뇨처리와 축사주변 악취 감시활동, 상운천 오폐수 방류점검 및 정화시설가동 확인, 토양오염 실태 감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명품 ‘스토리 산소길’ 조성

우리군 지역별 테마로 관광활성화 연계

우리군이 최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길을 차별화된 관광데마로 제공하기 위해 5개면별로 스토리가 있는 ‘산소길’을 조성한다.

군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테마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산소길을 읍면당 1코스 이상 개발,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양읍은 이미 4.8km의 모로골 산림욕장과 1.5km의 구탄봉 전망대 산책로를 개설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나머지 5개면에 대한 등산로를 개설한다.

서면은 장승2리~사항골~장승2리로 코스로 양양철광산 주변지역을 순회하는 6.6km의 ‘철산길’을, 손양면은 이미 추진 중인 수산항 봉수대 전망대 조성과 연계해 관광객들이 수산항과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봉수대길’을 조성한다.

현북면은 6.25전쟁 당시 38선을 따라 잔교리(38휴게소)에서 남천체험학습장까지 15km의 역사·관광·휴양을 접목한 ‘38선 숨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숲속 길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고 역사적 흔적을 재현해 관광 상품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현남면은 하월천리~바람불이등~시루봉으로 이어지는 12.6km의 ‘달래길’을 조성하고 강현면은 물치활어회센터 뒤편의 울창한 산림을 활용한 1.4km의 ‘해맞이길’을 개발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소길에는 종합안내 간판 및 이정표 등이 설치되며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안전시설, 데크로드,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양양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길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문의 미래전략과
자연거정책 담당 670-2266

사랑의 안과진료 ‘호응’

양양장로교회, 300여명 진료

양양장로교회(담임목사 정대운)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로암 안과병원의 도움을 얻어 진행한 안과진료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양장로교회는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안과전문의 2명, 간호사 4명, 검안사 1명, 기타 등 9명으로 구성된 서울 실로암 안과병원 진료팀을 초청해 교회와 이동 진료 특수차량을 이용해 300여명의 주민들에게 백내장수술 및 안과진료를 추진했다.

사랑의 안과진료는 양양장로교회와 안과가 없는 지역 특성을 고



려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백내장수술 치료비 부담 경감과 진료편의를 위해 결연관계를 맺은 서울 실로암 병원팀을 초청해 올해로 6년째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

우리군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급여, 예금, 카드결제계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조치하고 200만원 이상 장기 체납액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30만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변호판을 영치하고 모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명단을 공유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670-2145

제33회 현산문화제

진정한 군민화합·지역발전 염원

제33회 현산문화제 및 제43회 군민체육대회가 6월 16일 전야제에서부터 6월 18일 폐막식에 이르기까지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군민노래자랑과 인기가수 공연이 있었던 6월16일 전야제와 6월17일 야간에는 인근 속초·고성·강릉 주민들까지 행사장을 찾아 둔치 행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시내 음식점에서는 심야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활기를 띠었다.

올해도 영신농악행렬, 양주방아사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신석기인 가장행렬, 기미독립만세운동 재연 공연 등을 통해 호국과 애국 충절의 고장임을 재확인시켰으며 수동골 상여소리, 동호리 멸치후리기 공연 등 특색 있는 전통문화공연이 이어졌다.

6월17일 12시 남대천둔치 행사장에선 현남면 정자리 김남현씨와 베트남 켄티주엔씨가 수많은 군중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려, 새로운 다문화가정이 현산문화제에서 실제 전통혼례를 통해 탄생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행사기간동안 행사장 입구에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유치 군민서명운동에 남

녀노소, 장애인 등 각양각종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6월18일 열린 제1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는 총 38개팀 100여명이 참가해 5시간의 열띤 경연을 통해 강원도 지역 곳곳의 농요, 유희가 등 전통민요를 선보여 시종일관 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최우수상은 인제 박돈녀외 16명이 보여준 '인제가리남박 만들기 물레소리'가, 우수상은 원주 김영자의 5명이 부른 '원주어리랑', 황성 김영배외 5명이 부른 '우밀어리'가, 으뜸상은 '검불날리기소리'를 부른 속초 김소리양이 차지했다.

특히 이번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서는 세조대왕이 친히 노래경연을 주관했던 모습을 무대에 재연해 관람객들에게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6월17일과 18일 열린 군민체육대회에서는 강현면이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6월18일 오후6시 폐막식에서 3일간의 짧았지만 흥겨웠던 한마당 축제가 막을 내렸다.

▶문의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018-335-5295



사진전문가 / 전영진의 우리고장 돋보기



우리군의 고유 향토 축제인 제33회 현산문화제 및 제43회 군민체육대회가 열렸다.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고용달)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원장 김성호)이 주관한 이번 문화제는 양양군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통해 우리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몫을 했으며 6월18일 오후6시 폐막식에서 3일간의 짧았지만 흥겨웠던 한마당 축제가 막을 내렸다. 케이블카 설치 염원을 결집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대동단결의 의지를 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산문화제 성료

전통문화 계승 및 주민화합 다져

주민이 행복한 평생 학습도시 만든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74강

소설가 이경자에게 양양이란 무엇인가?

이경자 양양출신 소설가

저에게 이 강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겠느냐? 물었을 때 전 “소설가 이경자에게 양양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앞서서나 양양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를 그리워 하듯이 저는 늙으면 늙을수록 양양사람, 양양출신 소설가로서 우리 양양을 어떻게 하면 돋보이고 알릴 수 있을까 또 내가 양양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모님께 사랑받기 위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자식처럼 전 양양에 대해 생각합니다.

작가로서는 말년에 접어든 소설가 이경자의 고민입니다. 또 꿈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 제목을 “소설가 이경자에게 양양이란 무엇인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점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것 처럼이요. 오늘 아침 강릉에서 여기까지 동행했던 강릉출신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5억 인구 중에 나

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또한 나와 똑같은 생각도 없다.

장미라는 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찬사를 듣고 사랑받을 때 민들레, 채송화, 호박꽃이 주목될 필요가 있을까요? 장미가 사랑받는건 그 시대의 유행이고, 흐름입니다.

지방 여러도시는 서울을 꿈꾸고 부러워하고, 서울같은 도시들은 미국의 도시들을 부러워하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릉, 제주, 양양 모두 각기 고유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양양사람들은 우리의



앵두마을 축제 무한인심

현북면 명지리 산골체험 풍성

“앵두나무 우물가에~”

앵두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양양 현북면 명지리(이장 이무영)가 지난 11일 앵두사랑 축제를 열고 산촌마을의 무한인심을 전했다.

명지리 주민들은 이날 앵두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보석 같이 반짝이는 빨간색 앵두를 한 움큼 쥐어주며 감자 전 불이기, 우렁이 방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선사했다.

특히 이날 명지를 방문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친 가족 이상으로 대하며 맛 있는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다시 찾고 싶은 산골마을의 정을 듬뿍 전했다.

▶문의 현북면 산업개발담당 670-2645,





가 6월 16일 전야제에서부터 6월 18일 폐막식에 이르기까지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이 주관한 현산문화제에는 연인원 5만여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연일 행사장을 방문한 가운데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
으며, 침체된 지역 상경기에 모처럼의 특수를 가져다 줬다. 6월17일과 18일 열린 군민체육대회에서는 강현면이 종합우승을 차
1등 축제가 막을 내렸다. 정상철 군수는 "제33회 현산문화제와 제43회 군민체육대회를 통해 양양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오색
를 확인한 한마음 축제였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확인된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물론 지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으로 양양사람이 자기가치를 자기내면
으로부터 자기환경으로부터 이끌어 낼수 있
습니다.

저는 양양에서 18년 살고 쪽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늘 고향은 양양이고 제 그리움은
늘 양양으로 뻗어있고 서울은 늘 타향입니다
어떻게하면 양양에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양의 따스한 햇살을 쬐다 죽을 수 있
을까? 전 늘 생각합니다. 내 괴, 정신, 영혼이
너무나 양양적이다 라고 느낀건 그리 오래되
지 않았습니 다. 전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서
울사람이 아닌것에 열등감을 갖고 살았습니
다. 그런데 그 열등감은 제 가치, 능력, 정신을
좁먹는 생각이지 저를 살찌우는 생각이 아니
라는 겁니다.

고성, 강릉, 홍천, 인제같은 다른 고장과 우
리 양양이 무엇이 다르고 우리만의 것이 무엇
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전 소설가입니다. 소설가는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라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선 그 지역을 알아야
하고 그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아~ 양양을 알
아야겠구나 해서 양양의 역사를 공부했더니
우리 양양은 슬픈 역사를 가진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양사람들은
개개인의 훌륭한 재능, 자부심, 능력이 있음
에도 무엇엔가 억눌려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왜 우리가 작아졌을까? 저 나름대로는 6.25와
해방후 5년간의 인공치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소설가로서 우리 양양의 자연,
자랑, 자부심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쓴 "순이"에서 양양사투리를 썼는
데 제 욕심만큼은 못했습니다. 독자들이 이해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타지방사람들이 거부
감이 들지 않도록 적당히 썼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에선 그것만으로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
지방의 특색이니까요

전 앞으로도 소설가로서 양양의 삶, 상처,
자랑거리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75강 안내



- 일 시 : 2011. 6. 29(수) 15:00
- 장 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
- 강 사 : 전계화 미래인재양성연구소 소장
- 강연주제 :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라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14. 뽀꾸기

뽀꾹 뽀꾹 뽀꾹아
어디서 왜 우니?

오빠 생각 절로 나
숲속에서 운단다.

뽀꾹 뽀꾹 뽀뽀꾹
뽀뽀꾹 뽀꾹 뽀꾹.

숲 속 나뭇가지에 앉아 뽀해 놓는
뽀꾸기 울음에서 전설 하나 퍼게 합니다.
멀리 떠난 親同氣 생각 함께 그려 봅니다.
지나친 그리움은 恨으로 남는다가에 건
디어 낸 기다림의 꿈!
따사로운 봄벌에서 찾는 것도 意味 있다
하겠습니다.

양양여고 평생학습교실 ‘호응’

7개 강좌 2년간...하반기 신청 가능

양양여고(교장 임승환)가 지역주민들의 자
기계발과 교양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
양강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양여고는 강원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로 선정돼 지난 5월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교실 운영에 들어갔
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
초 설문조사를 실시해 취미여가생활 및 자격
증 취득을 위한 한식요리.요가.생활영어.배드
민턴.탁구.노래교실.컴퓨터반 등 7개 강좌를
선정하고 5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양양여고의 평생학습교실은 7개 강좌에서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출강해 하반기에는 8월
29일 개강해 11월11일 종강할 예정인 가운데
상반기에 신청을 못한 주민들은 하반기 신청
이 가능하다.



배드민턴반은 월·목요일 오후 7시 양양여
고 체육관, 노래교실반은 오후 7시 음악실, 탁
구반은 화.금요일 오후 7시 다목적실, 요가반
은 수.금요일 오후 2시 다목적실, 한식요리반
은 수요일 오후 4시 가사실, 컴퓨터반은 수요
일 오후 7시 정보처리실, 생활영어반은 오후
7시 영어전용교실에서 강좌별로 운영되고 있
다.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으로 자긍심 고취”

양양고 1.2학년 50명 체험학습

기숙형고교인 양양고등학교(교장 김형
식)가 올해도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을 운영해 학생들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
였다.

양양고는 지난 11일 노는 토요일을 맞아
기숙사인 현산학사 1.2학년생 50여명을 대
상으로 내 고장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

특히 사이클의 도시답게 자전거동호회
원들의 안내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양양고
를 출발해 2018동계올림픽 강원 평창 유치
를 기원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해양체험지
인 수산항을 왕복했다.

학생들은 연말 준공예정인 양양사이클
경기장을 둘러보고 수산항에 도착, 양양군
요트협회로부터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고 두 팀으로 나눠 요트체
험과 수산바다 선상 바다낚시를 체험하며
내 고장의 소중한 자연과 관광자원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됐다.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추진

우리군이 소외계층의 자유로운 국내여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바우처사업을 추
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으로서 개별로 국내여행상품 구매시 1인당
15만원 이내, 가족 동반시 최대 20만원을 지

원하며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경우 1인당 15만
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군은 6월 20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여행
바우처 참여자 지원 접수를 받아 50명의 개인
이나 가족, 단체를 선정해 여행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현남 남애리 체계적 개발 전기

우리군 관리계획 승인...해안개발 기대감

강원도 3대 미항이 위치한 양양 현남면 남애리 일원의 취락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이 최종 승인 고시돼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따르면 지난 2003년도에 지정된 현남면 남애리 취락지구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을 등을 정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사전환경성 검토 및 농지, 산지 등 관련법 협의과정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0일 최종 결정 고시됐다.

이번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취락지구 면적에서 개발여건이 어려운 농림지역 6,330㎡를 제척한 34만700㎡로 변경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했다.

특히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12만9,434㎡, 상업용지 9,060㎡, 도로 및 환경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10만93㎡, 녹지용지 10만2,113㎡로 구획했으며, 기존의 공업용지 2만6,922㎡를 폐지하고 공공시설용지와 남애항 등의 경관을 고려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대했다. ▶문의 경제도시과 지역계획담당 670-2193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하게”

손양면 학포리 시범마을 지정 추진

우리군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농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양면 학포리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마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3년간 2억원을 들여 농업인들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으로부터 안전한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손양면 학포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인 학포리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지속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와 안전 농기계 구입지원,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영농컨설팅 용역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



14일 첫 사업으로 ‘건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됐다.

이날 건강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연세대원주의대 의료진,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등 4개 기관이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를 비롯해 농촌일손돕기, 영농현장 컨설팅지원, 농기계수리 부문으로 추진한다.

▶문의 농업정책과 생활지원담당 670-2338

지방세 개선방안 전국 우수상

우리군 세무회계과 불합리 개선노력 돋보여

우리군이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지방세 개선방안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1일부터 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대구에서 열린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리군 세무회계과가 발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개선방안(농업인을 중심으로)’이 대구광역시와 함께 우수상 영예를 차지했다.

세무회계과는 이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업무를 담당하는 서미선씨(세무7급)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제도 중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협 등 금융기관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서씨는 농어업인 등록면허세 감면이 비농어업인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지방세수의 확충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무부담의 수직·수평적 형평성의 침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췌던 양양철광 675만톤 다시 빛 본다

대한광물·양양군 서면 장승리서 재개발 기공식 가져



198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다 95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양양철광산이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다.

대한광물(주)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양양 서면 장승리 옛 철광 갱도 인근에서 양양광업소 철광산 재개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개발에 돌입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대한광물의 주주회사인 김영한한전산업 사장과 감사인 이형섭 에이앤씨바이오홀딩 대표, 정상철 양양군수 등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양양철광의 재가동을 축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난 1995년을 끝으로 폐광된 뒤 16년 만에 재개발을 의미하는 기념발과가 옛 갱도 인근에서 울려 퍼지자 다시금 양양철광이 변영의 시

대를 맞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되는 양양철광산은 675만톤의 가채광 철광을 생산하는 것을 비롯해 세계적인 희귀 금속인 희토류의 일부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한광물은 현재 갱구개설, 진입교량 건설 및 갱도 굴진, 광물선별장 설치 등 채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작업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부터 고품위의 철광석 원광 30만톤 이상을 10여년에 걸쳐 생산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노후 공동주택 보수

우리군, 6개 단지 8천만원 지원

우리군이 관내 노후 공동주택 6곳에 시설보수비용 8천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10년이 만료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5월 시설보수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6개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대상은 청곡리 율화아파트의 노후 담장보수, 양양읍 구교리

대산2차아파트의 옹벽담장 개보수, 손양면 하왕도리 삼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현남면 남애리 우정아파트의 옥상방수, 양양읍 구교리 우신연립의 노후 담장 휨스 교체, 양양읍 남문리 남천연립의 옥상방수 및 도색사업으로 6곳의 총사업비 1억1천5백만원 중 7~80%에 해당하는 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추진한다.

특히 군은 지난 4월 조례개정을 통해 종전까지 공동주택의 단지별 총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아파트는 70%, 연립주택은 80%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에 따라 입주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670-2165

“올 여름 휴가는 양양에서”

2011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서 홍보

우리군이 인구 3만명 회복을 목표로 도시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양양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해 열린 2011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유치전에 나섰다.

4일간 10만여명의 도시민 관람객들이 참여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해달마을과 송천 떡마을 등 7개 지자체 52개 체험마을이 참가한 가운데 양양군은 도시민 유치TF팀을 파견해 귀농귀촌 정책정보 제공 및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군은 특히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편리해진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들며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도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우리군이 지난 2~3월 실시한 귀농귀촌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는 총 154명이 수료해 이중 7가구 20명이 귀농해 생활하고 있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귀농귀촌학교에는 귀농을 준비하거나 실행중인 39명의 도시민들이 과수·표고·허브·전원생활·송천떡 등 5개반으로 나뉘어 월 2회 1박2일 코스로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기간교육을 받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479

연안어선 6척 감척 실시

수산자원 회복 경쟁력 제고

우리군이 연안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연안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나선다.

올해 추진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강원도 허가정수가 초과된 업종인 연안자망어업과 통발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 6척에 대해 실시하며,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선령이 6년 이상 된 어선의 소유

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과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 평가한 잔존 가치평가액을 지원하게 되며, 폐업지원금은 업종별·톤급별로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어업인이 입찰한 금액 중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 순으로 지원한다.

군은 이같은 어선감척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어업인 설명회를 오는 30일 가진 뒤 7월15일까지 공고 및 신청접수 후 7월말까지 낙찰자를 결정, 오는 10월말까지 감척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670-2740

슬레이트 지붕개량 추진

일자리 사업 일환 6가구



우리군이 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나선다.

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 위험과 냉난방이 잘 안되고 누수 발생 등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의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 슬레이트를 전면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해주는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생활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6가구를 선정해 폐 슬레이트 전문 철거인력 1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6~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가동해 석면제거 및 지붕개량을 추진하고 전기배선, 도배 등 내부수리도 병행해 수리해준다

군은 하반기에도 5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현남면 공고 제 2011 - 1 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현 남 면 장

1. 사업명 : 『김남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262-3번지
3. 도로길이 : 22.0m
4. 도로 폭 : 4.0m
5. 도로면적 : 20.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2,805.0	20		
현남면 인구리	262-3	답	2,805.0	20	김남호	

어린이박물관 체험교실 ‘인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10월까지 진행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어린이 박물관 교실’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관내 16개 초등학교 3학년생 18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과 추억거리를 제공해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9일 첫 수업을 시작해 오는 10월6일까지 운영되는 어린이 박물관 교실은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박물관 교실을 흥미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박물관 해설사와 문화해설사 등 직원들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자들은 박물관과 야외 움집 및 상호 탐방로를 둘러보며 신석기인 생활체험, 신석기 문화 서바이벌 퀴즈대회, 야외체험장에서 나만의 점토 토기 캐릭터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고 기념품을 상품으로 제공해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며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지역문화와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높이고 있다.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교육과학기술



부의 7차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3학년 사회에 나오는 지역화수업과 연계해 어린이들에게 양양과 강원도의 문화·역사, 선사시대의 연구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3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지난 4월초 2006년~2007년 사이 손양면 오산리 72-2번지 일원에서 출토된 석기, 옥, 토기 등 모두 1,161점의 신석기 유물이 귀환함에 따라 ‘다시 태어나는 오산리유적’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말, 신석기인들의 숨결을 느끼며 오산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획전시를 준비하는 등 고유의 선사문화 향유권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문의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선사유적담당 670-2548

서면 용천지구 도로 확·포장 완료

용천~북평간 연결도로 개선 통행편의

우리군이 올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서면 용천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됐다.

군은 도로 폭이 4m로 차량 쌍방교행이 어렵고 도로 선형 불량 및 인근농지와의 낙차가 커 그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서면 용천~북평간 연결도로 개선공사를 지난 3월 착공해 최근 완공했다.

이번 사업은 토지보상을 포함 사업비 5억9천만원이 투입돼 폭 7m, 총길이 620m의 2차선으로 확·포장됐으며, 구불구불한 선형을 직선으로 개선하고 배

수로 350m를 설치해 인근 농지의 통수 단면을 확보했다.

특히 사업구간 중 국도 59호선과 접속하는 구간의 200m에 대해서는 기존 농어촌도로 내 고속도로 교각 설치에 따라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단이 포장 시공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아스콘 포장을 마치고 이달부터 초부터 개방돼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용천~북평간 연결도로 개선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도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문의 산림농지과 기반조성담당 670-2764

유원지/해수욕장 임시전력 가설물 감전사고 예방안내

중해 추암 해변 인근서 중학생 '감전사'

사고내용

- 바다에서 놀다가 물 빠지고 썰기 쪽으로 물레기라고 계단 옆에 놓여있던 황제 구조물의 쇠피어코를 밟는 순간 심지가 쓰러져 사망

「유원지/해수욕장」 감전사고 방지대책

- ① 유원지/해수욕장내 무단 현충 사물 금지
- ② 유원지/해수욕장내 임시전력 설비 밀폐정검 시킬
- ③ 임시전력 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주기적 점검 (월 1회 이상)
- ④ 임시 배선과 누전 위험개소에 절연보감 (테이프, 분기슬러브커버 설치)시행

전기 고장신고 및 사용신청 문의 전기상담국번없이 **123**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http://www.kepco.co.kr

비군인 참전유공자를 찾습니다

▶대 상 : 6.25전쟁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

* 비군인 :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군속, 징용된 노무자, 국민방위군 등

▶절 차

참전사실확인신청서와 입증자료(귀향증, 종군기자증수여증, 사진 등) 또는 인우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신청 국방부 심의 후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호(지)청에 참전 국가유공자 등록

* 군인신분으로 참전하신 분은 읍·면·동사무소(또는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호(지)청에 참전 국가유공자 등록

▶예우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 지급 : 월12만원(65세 이상) 고공,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이용시 입장료 면제 사망시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장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www.mnd.go.kr)>국방정보공개>업무분야별 자료>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신청 안내(167번자료) 안내 참조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5257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가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속초·양양사무소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2조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인, 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면세유류를 부정유통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됩니다.

- 농·어민이 아닌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 농·어민이 아닌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석유류를 양수 받는 경우
-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기계의 변동신고서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을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추징, 3년간 면세유류 판매금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속초양양출장소 631-6060

육군에서는

6·25 무공훈장 및 전사·순직자 유가족을 찾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국헌신의 삶을 사셨던 선배전우들의 고귀한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알리기 위하여,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와 「6·25 전사·순직자 유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육군본부 인사제과 유가족찾기 담당부
부금담당 : 08205-7333, 082050-7333
결사처 : 08205-7331-2, 0821550-7331-2

육 군 본 부

도로 무단횡단 예방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우리가 무심코 건너고 있는 도로상의 무단횡단!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비롯된 사고는 일상 생활속에서 무심결에 이루어지는 보행자의 교통법규위반(무단횡단)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시속 32km에서는 보행자의 5%, 48km에서는 45%, 64km에서는 85%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영국 교통연구소, TRL)

※ 무단횡단 벌칙 :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문의 / 교통안전공단 안전기획처 ☎ 1577-0990

전신주는 112신고시 등대 역할을 합니다

- 산간·오지 등 신속출동을 위한 전신주 위치 연동 112신고 서비스 구축 -

『전신주 위치 연동 112신고 서비스』란?

위치설명이 곤란한 지역에서 신고자가 전신주 관리번호만 알려주면 경찰에서 전신주 위치를 검색하여 신속출동 현장검거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시스템 입니다.



- 전신주 번호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
- 한번의 지령으로 현장도착하는 One-Stop 체계 가능
- 위치확인시간 최소화 - 최소출동시간 실현

문의 /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633-5282

2011년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됩니다

- 연료비연동제는 신속한 가격신호 제공으로 국가전체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 석유, 가스 단행품 전기요금에 대해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 공급 연간 약 1조원 발생
 - 대량한 산업용 고가의 경우 추가세금을 사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개선
 - 대량 연동되는 연료비 조정요율의 사전제고로 전기소비자의 생활에 부담
- 해외 선진국과 국내 타 에너지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중인 검증된 제도입니다.**
 - 해외 전기요금 -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중
 - 국내 타 에너지산업 분야 - 석유(94), 가스 - 열(98), 동력(98)
-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추가적인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제도에서도 발전연료비 증감은 전기요금 조정시 반영되어 왔습니다.
 - 연료비연동제는 기존의 연료비 증감 폭폭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국제연료가격 등 추이에 맞추어 제할 분을 반영하여 신속한 가격신호를 제공합니다.
-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하여 "연료비조정요금"을 신청합니다.**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 = 사용전력량 × 연료비조정단가
- 전기요금청구서나 인천 홈페이지에서 당월 및 다음달 연료비조정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 2011년 6월부터 인천 홈페이지(www.seaon.co.kr)에 연료비조정단가 및 신청내역을 게시합니다.

연료비조정요금 산정예시

연료비조정요금(원) = 월간 사용전력량(kWh) × 연료비조정단가(원/kWh)

- 연료비조정단가는 판매용 연료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를 시소방적으로 지정한 후 정부의 검토 및 인가를 거쳐 결정합니다.
- 연료비조정요율도 과다한 경우 및 한한 용에 대해 게시된 연료비 조정단가에 월간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차를 산정합니다.

신청예시 (발전연료비 조정단가 58.30원/kWh, 연료비조정단가 ± 1.2원/kWh, 사용량 500kWh)

연료비조정요금 = (58.30원 × 500kWh) ± (1.2원 × 500kWh) = 29,150원 ± 600원

전기요금 및 고지청고 ☎ 국번없이 123 http://cyber.kepco.co.kr

KEPCO